

수신: 김재춘 관장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T. 062-383-1391 / jckim@childfund.or.kr

담당: 이나래 기자 / CMB광주방송 010-4876-9290 T. 062-461-9522 / cmb\_ann@hanmail.net

방송: CMB광주방송 (<http://www.cmbkj.co.kr>) / 채널22번

프로그램: CMB뉴스와이드 / 2014. 04.16 오후 18:00 생방송

코너: 투데이포커스

<투데이포커스 전화인터뷰 질문 내용>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062-383-1391

**헤드라인: "광주 아동학대 가해자, 80% 친부모"**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에서는

최근 3년간 3백 쉰건에 달하는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가해자 10명 중 여덟명은

친부모라는 조사결과가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지역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김재춘 관장과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광주지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광주지역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조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또 우리지역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본 기관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통하여 학대사례인지 아닌지 판정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해마다 유형별 아동학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경우 2011년 195건, 2012년 187건, 2013년 2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져서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2.**

3년 사이에 352건이 아동학대로 인정됐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학대 수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가장 많은 경우가 방임으로 11년도 37건, 12년도 21건, 13년도 37건에 달합니다. 방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거나,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나 치료를 적절히 받아야 할 때 이를 하지 않는 행위가 모두 포함되며, 요즘은 ‘생계형 방임’이라는 형태로 한부모 가정이나 빈곤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아이를 방임상황에 놓이게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늘고 있어 지역사회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방임 뿐 아니라 신체학대 역시 매년 많은 아동학대 사례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체벌이나 매로 아이를 훈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릇된 사고가 만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3.**

네, 신체적인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와 방임학대까지 학대가 심각한 수준인데요.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부모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동학대 발생 유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또 친부모의 아동학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3년도에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의 경우 118건인데, 그 중 신체학대는 24건, 정서학대는 17건, 성학대 6건, 방임 37건, 그리고 두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34건에 달합니다. 정서학대의 경우 상흔이나 피해 정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의 인격이나 자아존중감 형성,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학대행위의 대부분이 친부모에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인데, 최근 3년간의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해보면, 매년 80%이상의 학대사례가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4.**

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나 된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왜 이렇게 가정에서의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학대사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사회가 자녀양육을 위한 훈계의 차원과 학대에 대한 차이를 바르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가 아이를 소유물로 인식하는 그릇된 가치관이나 자녀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사고가 학대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질문5.**

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한 교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 내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녀훈육과 학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훈육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체벌’이라면 이는 신체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고 해도 아이를 체벌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감정이 투사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학대의 시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로 하여금 지나지게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면 이는 학대로 보아야 합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아이에게 느껴지는 갈등이나 화가 줄어들 수 있으며, 아이에 대한 ‘기대’를 아이에게 ‘기여’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해본다면 가정내의 학대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6.**

그렇군요.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외부에서 알아차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건 더욱 어려울 텐데요.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경우 이웃집에서 인지하거나, 학교에서 아이를 관찰함으로써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행위자가 스스로 자신이 아이를 학대했음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 학대받은 아이가 이웃에게도 잘 노출되지 않거나, 미취학 또는 학교밖 아이라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정의 일을 그 가정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개인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겠고, 지역사회의 교육제도, 복지제도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가정 내 학대로부터 노출되지 않는 아이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7.**

네. 그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우리가 한 사회인으로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때부터 고등교육까지 몇 년에 걸쳐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권리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내아이 뿐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에게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대나 폭력상황을 목격하셨을때는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주셔야 우리 사회가 더욱 살기좋은 곳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을 말씀드리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김재춘 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막)

김재춘 관장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62-385-1391

각 질문에 대해

1~2분 내외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투데이 포커스 진행방식>

\* CMB뉴스와이드(생방송) 중 전화로 연결해 아나운서와 질의 답변하는 방식

\* 17시 45분 경 사전점검 전화연결

\* 18:05~18:10 생방송 전화연결 (생방송이니 다른 전화 통화는 삼가 바랍니다.)

\* 전체 6분~7분 소요되니 답변을 적절히 분배 바랍니다.

\* 사전 녹음의 경우, 녹음하기로 사전 약속된 시간에 유선전화로 연락 드립니다.